# 전기차/배터리

## 미국, 전기차 목표 비중 계획대비 하향
## 유럽, 2월 전기차 판매 성장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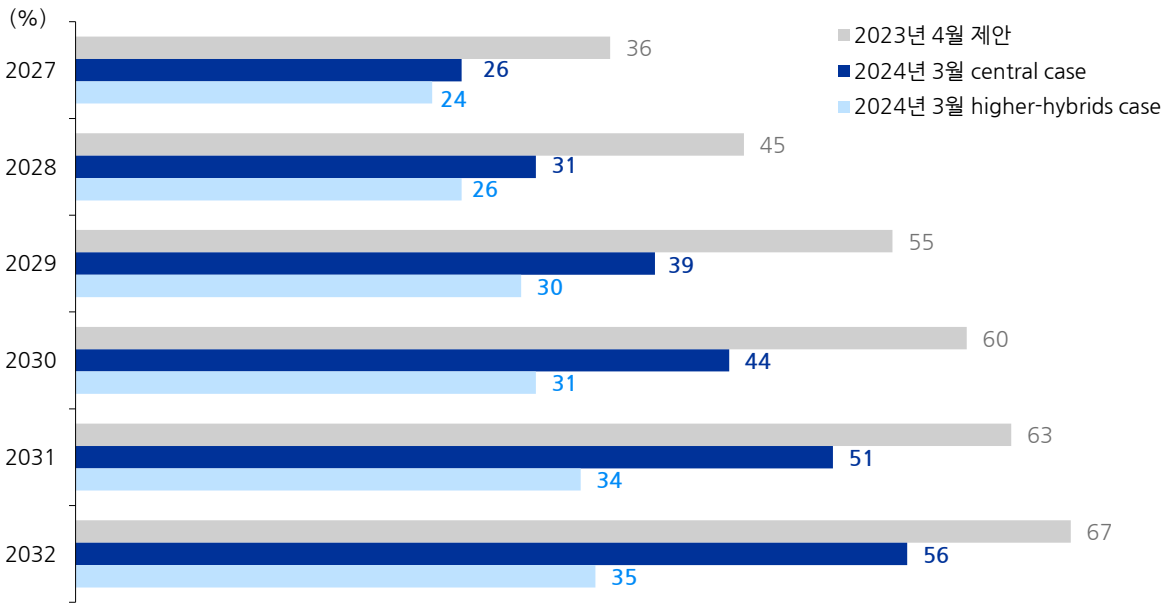
**전기차 산업 포인트**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판매 기존 목표 대비 완화된 기준으로 확정. 유럽, 독일 보조금 중단으로 전체 시장 성장세 둔화, 내달 판매도 프랑스 보조금 둔화로 부진 전망. 밸류에이션 낮은 종목 위주로 투자 바람직

Green Industry 한병화_ 02)368-6171_ bhh1026@eugenefn.com

- 바이든 정부, 전기차 목표 비중 지난 해 발표한 기존 계획 대비 10%P 이상 낮춰 확정
- 하이브리드 채택 비중 높이면 기존 계획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전기차 비중 낮출수 있어
- 트럼프가 전기차 가속화 정책 반대를 핵심 전략으로 채택한 것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 수정
- 바이든 재선 가정해도 2030년 전기차 비중 50%에서 40% 수준으로 낮아질 것
- 유럽 2월 판매 20.3만대로 전년대비 11% 증가에 그쳐, 독일의 판매가 5% 역성장한 것이 주원인
- 독일의 보조금 중단에 이어 3월 15일부터 프랑스의 수입 전기차 보조금 축소 시작으로 상반기 판매 부진 지속 예상
- 글로벌 배터리 관련주들 중 낙폭 과대한 종목들 반등 움직임 있어, 업황 둔화가 주가에 반영된 경우 합리적인 투자
- 다만, 업황과 반대로 밸류에이션이 급상승한 한국의 일부 배터리 종목들은 투자 리스크 여전히 높아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목표 비중 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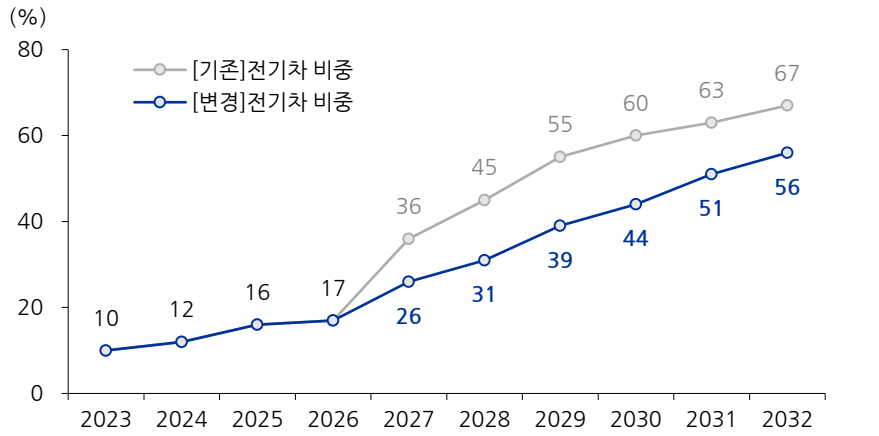



자료: DOE, 유진투자증권

**바이든 정부, 전기차 확산 가속 정책 후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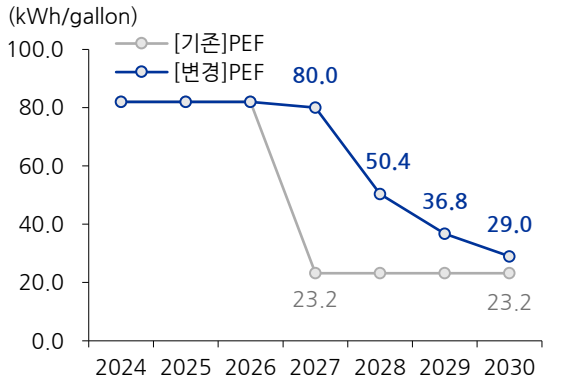
바이든 정부는 작년 4 월, 자동차 배출 규제, 전기차 전비 등을 통해 2032 년 신차 기준 전기차 비중을 67%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업계와 소통 후 지난 주에 최종 계획을 확정했는데, 당초 계획을 많이 축소했다. 2027~2032 년 전기차 판매 비중을 10%p 이상 낮췄고, 하이브리드 비중을 높이는 시나리오로는 최대 32%P 낮출 수 있다. 완성차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바이든의 전기차 확산 정책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수정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바이든 정부의 계획을 기반으로 2030 년까지 미국 내에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초 계획이라면 2030년 기준 50% 수준의 전기차 비중을 목표로 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수정된 계획으로는 50% 달성을 2 년 이상 늦추는 감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 1. **바이든, 전기차 비중 목표치 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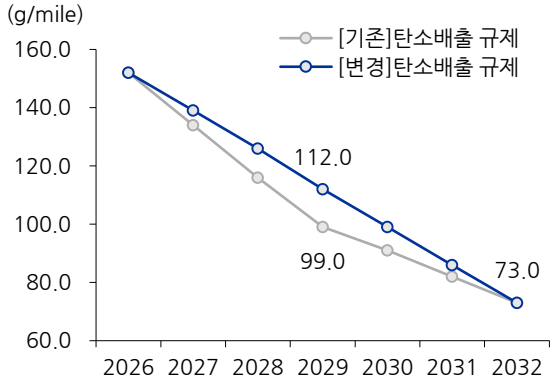

자료: DOE, 유진투자증권

도표 2. **PEF 기준 내연기관차에 우호적으로 변경**




자료: DOE, 유진투자증권
주) PEF(Petroleum Equivalent Factor: 석유환산 계산법),
숫자가 높을수록 전기차 판매 압력 낮음

도표 3. **차량당 탄소배출 규제도 완만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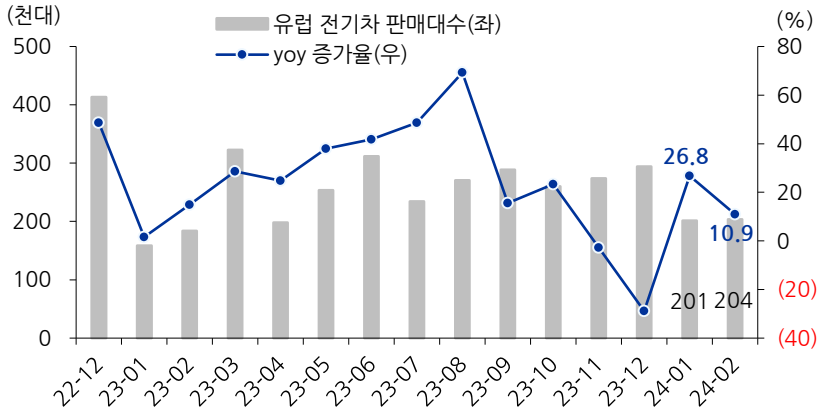



자료: EPA, 유진투자증권

### 유럽은 감속 모드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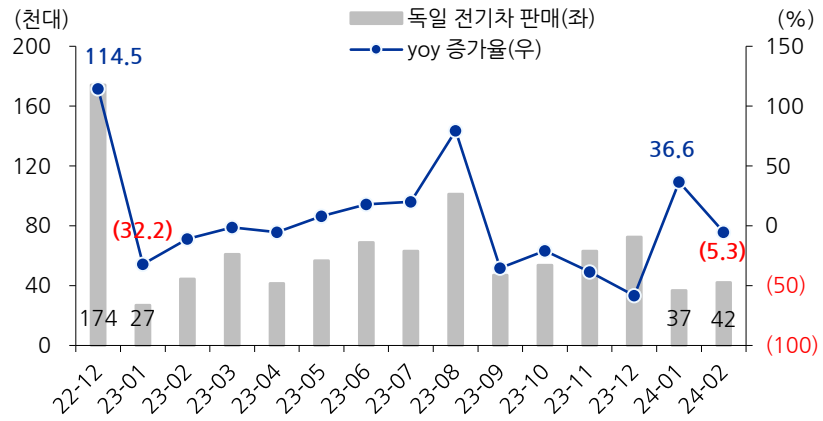
유럽의 2 월 전기차 판매는 20.4 만대로 전년비 11%의 성장을 기록했다. 1 월에 기저효과로 27%로 증가했던 성장률이 낮아진 것이다. 독일의 보조금이 중단되면서 5% 역성장한 것이 감속의 가장 큰 이유이다. 3 월 15 일부터는 판매량 2 위 국가인 프랑스가 해외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축소한다. 따라서 상반기까지는 유럽의 전기차 판매 성장이 부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당사는 2024 년 유럽의 전기차 판매 성장률을 17%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월별 평균 판매가 30 만대를 상회해야 한다.

도표 4. **2 월 유럽 전기차 판매, 전년비 10.9% 성장으로 부진**




자료: ACEA, 유진투자증권

도표 5. **가장 큰 시장인 독일 2 월 전기차 판매 전년비 -5.3%로 역성장**




자료: ACEA, 유진투자증권

**밸류에이션 낮은 업체들 위주로 투자해야**

중국과 한국 주식시장에 낙폭이 과대한 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 업황 개선 조짐은 없으나, 중장기 성장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하락하면 투자매력이 높아진다. 금리인하에 따른 전기차 구매 환경이 개선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가 급락폭이 업황 둔화에 따른 실적 하락 폭 대비 컸던 업체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투자라고 판단된다. 반면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업가치는 급상승한 업체들은 여전히 투자 위험이 높다. 유독 한국 주식시장에만 이러한 종목들이 많은 상태다.

도표 6.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예측치**

| (천대) | 2022A | 2023F | 2024F | 2025F | 2026F | 2027F | 2028F | 2029F | 2030F |
|---|---|---|---|---|---|---|---|---|---|
| 북미 전기차 판매량 | 1,042 | 1,578 | 2,145 | 2,920 | 3,917 | 5,089 | 6,378 | 7,725 | 9,168 |
| 미국 전기차 판매량 | 918 | 1,393 | 1,907 | 2,629 | 3,557 | 4,648 | 5,839 | 7,066 | 8,364 |
| YoY(%) | 51.2 | 51.7 | 36.9 | 37.8 | 35.3 | 30.7 | 25.6 | 21.0 | 18.4 |
|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 | 6.4 | 8.6 | 11.5 | 15.4 | 20.4 | 26.1 | 32.2 | 38.2 | 44.3 |
| 캐나다 전기차 판매량 | 124 | 185 | 238 | 291 | 361 | 441 | 539 | 659 | 804 |
| 아시아, 대양주 전기차 판매량 | 6,229 | 8,515 | 10,567 | 12,479 | 14,385 | 16,396 | 18,449 | 20,195 | 21,586 |
| 중국 전기차 판매량 | 5,924 | 8,095 | 10,039 | 11,816 | 13,551 | 15,340 | 17,111 | 18,476 | 19,350 |
| YoY(%) | 83.7 | 36.6 | 24.0 | 17.7 | 14.7 | 13.2 | 11.5 | 8.0 | 4.7 |
|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 | 22.1 | 26.9 | 32.4 | 37.0 | 41.2 | 45.3 | 49.0 | 51.4 | 52.3 |
| 일본 전기차 판매량 | 55 | 84 | 122 | 176 | 255 | 373 | 535 | 765 | 1,090 |
| YoY(%) | 30.0 | 53.6 | 45.3 | 43.7 | 44.8 | 46.2 | 43.6 | 43.0 | 42.5 |
| 일본 전기차 판매 비중(%) | 1.2 | 1.8 | 2.5 | 3.6 | 5.1 | 7.3 | 10.3 | 14.4 | 20.1 |
| 기타 아시아 총합 | 499 | 671 | 810 | 975 | 1,159 | 1,367 | 1,607 | 1,908 | 2,294 |
| 유럽 전기차 판매량 | 2,602 | 3,075 | 3,610 | 4,209 | 4,819 | 5,494 | 6,261 | 7,107 | 8,044 |
| YoY(%) | 15.1 | 18.1 | 17.4 | 16.6 | 14.5 | 14.0 | 14.0 | 13.5 | 13.2 |
| 유럽 전기차 판매 비중(%) | 22.3 | 23.1 | 26.5 | 30.3 | 34.1 | 38.1 | 42.5 | 47.3 | 52.5 |
| 기타국가 전기차 판매량 | 218 | 522 | 679 | 869 | 1,086 | 1,336 | 1,603 | 1,892 | 2,213 |
|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 79,475 | 87,242 | 89,860 | 92,556 | 95,332 | 97,239 | 99,184 | 101,167 | 103,191 |
| YoY(%) | (1.1) | 8.0 | 3.0 | 3.0 | 3.0 | 2.0 | 2.0 | 2.0 | 2.0 |
|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 10,091 | 13,689 | 17,000 | 20,477 | 24,208 | 28,315 | 32,691 | 36,918 | 41,011 |
| YoY(%) | 55.0 | 35.7 | 24.2 | 20.5 | 18.2 | 17.0 | 15.5 | 12.9 | 11.1 |
| 전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 | 12.7 | 15.7 | 18.9 | 22.1 | 25.4 | 29.1 | 33.0 | 36.5 | 39.7 |

자료: Ev-Salse,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 당사 투자의견 비율(%) |
|---|---|---|
| · STRONG BUY(매수) |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 0% |
| · BUY(매수) |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 96% |
| · HOLD(중립) |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 3% |
| · REDUCE(매도) |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 1% |

(2023.12.31 기준)